

고성·육설에 성희롱까지...부끄러운 광주 기초의원들

고경애 의원, 내년 본예산 심사 과정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육설 오광록 의원, 여성공무원에 "승진에 외모 중요 성형해야" 희롱 남구의회, 의장파·반대파 갈등...북구의회, 동료 의원들간 고성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이 도 넘은 발언과 행동으로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동료 의원에게 육설하고 의원 간 고소가 잇따르는 등 '꼴부러 민주당'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025년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고경애(다 선거구) 서구의원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육설을 해 논란이 됐다.

해당 육설은 공무원과 집의과정에서 나왔는데 대상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고 의원은 "동료 김군호 의원이 말을 끊어서 김 의원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말을 끊은 적 없다"며 지난

19일 고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희롱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록(나 선거구) 서구의원은 지난달 29일 서구 동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서 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승일(가 선거구) 서구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광주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자 사물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해당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사무국의 홍보·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의회운영위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건축 재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의정활동 지원비 43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활동 홍보지원비 5250만원 중 225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경비 지원 1억7945만원 중 9053만5000원을 삭감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남구 내부에서는 후반기 의회 구성 당시 생김 갈등이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기획총무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의 골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졌다. 이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투표도 중 '기표소에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일부 의원의 항의가 제기됐고, 지적된 의원들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의원 4명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수

사기관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후반기 원구성에 차질을 빚은 남구의회는 이후에도 내홍이 이어지며 4개월여만인 지난달 28일에서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같은 예산 삭감이 '의장파'와 '반대파'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가 선거구·무소속)에게도 지난 6월 의정선거를 앞두고 의회 사무국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지만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현재까지 정확한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도 동료 의원들간 고성 이 오가는 등 불협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광주 북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폭력예방교육에는 전미용, 김귀성, 정상용, 손혜진, 기대서 의원이 지각 출석했다. 기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은 같은 시각 '광주시 북구 반려동물 인식개선 및 복지 향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진행해 제 시간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강성훈 의원이 뒤늦게 교육장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지금 오시는 의원님들은 교육 안들은 걸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강 의원 등이 자리를 비우자 전미용 의원(가 선거구)은 "한달 전부터 잡힌 보고회인데, 어떡하라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보다못한 김영순 의원(다 선거구)이 "표현 방식이 그게 뭐가요"라고 지적했고 전 의원은 "의원님한테 말한 거 아닙니까"라며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배배 동료 의원들에게 존중 없는 언행"이라고 지적을 이어갔고 전 의원 역시 이에 반박하며 현장에서 고성 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역 노동·시민 단체는 지난 23일 민주당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대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남구 양림동 선교회지, 세계유산 등재 가치 충분...보존해야

내일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 역사적 가치·원형 상태 뛰어나

광주시 남구 양림동 근대 기독교 선교기지를 세계유산 등재에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역에 서양문화 보급 길목을 하면서 인간존중과 평등, 민주주의 실현의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고, 유적의 원형 상태도 뛰어나다는 점에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의 보존 가치와 현황,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한 학술적 연구 기반 및 등재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남구와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 주최

·주관으로 개최되고 감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해 유적 소유자인 기독교간교회와 호남신학대, 수피아여중·고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남구와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유산청 예산과 시비, 구비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보고서에는 오웬기념각과 우일선교사사택, 선교사 묘역, 수피아 홀과 커티스메모리얼 홀, 윈스보로우 홀, 수피아여고 소강당까지 7곳의 자산별 현황조사 내용 및 건축적 가치가 담겼다. 또 유산별 보존 환경 및 보존을 위한 관리 계획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계획에 따른 종합 관리체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준 요건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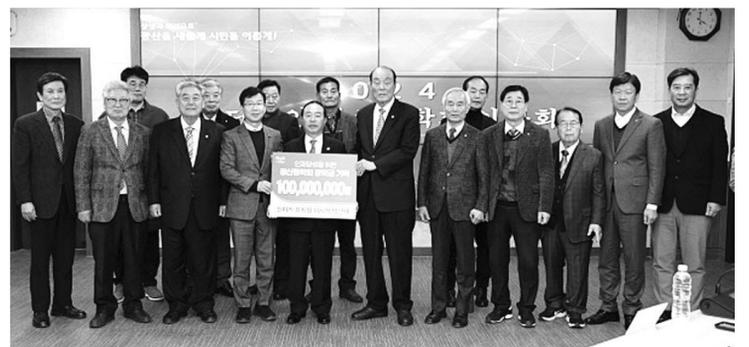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는 서울과 청주, 광주, 전주 등 전국 8곳의 선교기지처럼 교육 선교와 복음 전도를 공통점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의료 선교를 통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선교기지. <광주시 남구 제공>

결핵과 나병환자 치료는 양림동만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결론냈다.

남구 관계자는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는 서양 문물 접촉을 통해 인간존중과 평등 세상을 열었던 중심지였고, 세계유산으로서도 역사적인 가치와 보존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광산장학회' 올해 역대 최고 장학금 모금

24년간 4천여 학생에 43억5000만원 수여...지역 인재 양성 노력

광주시 광산구의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설립된 '광산장학회'가 올해 역대 최고 장학금 모금 실적을 기록했다.

25일 광산장학회에 따르면 올해 기탁된 장학금은 총 2억7668만원에 달한다. 매년 1억원 안팎이었던 기탁금이 올해는 2배가 넘게 모금된 것이다.

이에 '광산장학회는 오는 2025년까지 5개의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할 계획으로 광산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박선재 신미래유치원 이사장이 광산장학회 설립 이후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을 기탁했다.

또 이경진 농협 광산지점장 및 박홍식 비아농협조합장, 김보근 광진회장, 김원기 화정떡갈비 대표 등이 각각 1000만원,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 대표원장이 500만원 등을 기탁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광산장학회' 강박원(93) 이사장 및 최환연 사무국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남다른 노력이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열린 기탁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장학회의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자랑스럽다"며 "광산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강박원 이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훌륭히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 뿐이다"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강력한 열정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재)광산장학회는 현재까지 3933명의 학생들에게 총 43억 5575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매년 관내 기업을 비롯한 재단 이사장들이 기탁금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충당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북구, 올해 대외 평가·공모 성과...328억 상사업비 확보

광주시 북구가 올 한 해 대외 평가·공모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냈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북구는 정부 부처 등이 시행한 각종 '대외 평가·공모'에서 78회 수상·선정됐다. 이 결과 328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북구는 대외 평가 부문에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복지사업 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전국 지자체 1위',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지역 금융 협력 모델 발굴·지원사업 평가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선정됐다. 또 중기부 주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는 '전국 자치구 유일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12회 연속 최우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일자리 대상 12년 연속 우수, 혁신평가 6년 연속 우수,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 3년 연속 우수,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등을 기록했다.

공모사업에서도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첨단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346억 원을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북구가 민선 8기 역점정책으로 내세운 '기후 위기 대응 도심 수해 예방' 6개 사업비 1309억 원 전액을 확보했다.

아울러 총 37회 공모에 선정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원,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e커머스 라이온 타운 조성사업 12억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11억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9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3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1억원 등을 확보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 평가·공모 성과는 열약한 지방재정을 채워주며 재정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